

보도시점 2025.7.30.(수) 12:00 배포 2025.7.30.(수) 09:00
(2025.7.31.(목) 조간)

과기정통부, 시장과 호흡 맞춰 인공지능(AI) 산업 이끌 핵심인재 본격 양성

- ‘생성인공 지능(AI)선도인재양성’ 및 ‘인공 지능(AI)최고급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6개 신규 수행기관 선정
- 실제 현장의 문제와 연결된 산학협력형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생성 인공 지능(AI)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인공 지능(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생성 인공지능(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과제선정 >

‘생성 인공 지능(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생성 인공 지능(AI) 선도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초격차 생성 인공 지능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관은 자체 보유한 생성 인공 지능 기초 모형(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연구용 API 및 데이터 제공, 기술 지도, 공동연구 과제(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과제당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현장 중심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을 선발해 기업 파견 및 심화연구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적시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LG AI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함께 ‘LG AI STAR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의 거대 생성모델 기술 선도를 목표로 한다. 엔씨에이아이(NC AI)는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협력하여, 다중형태 인공지능 대리인(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게임 제작 공급망(파이프라인) 효율화를 통한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고려대 등과 함께, 인간 중심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간형 기초 모형(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와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2025년(추경) 생성 인공지능(AI)선도인재양성 사업 선정 기관 >

주관기관	과제 주제	공동연구기관
LG AI연구원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의 거대 생성모델 기술 선도를 위한 LG AI STAR 인재양성 사업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NC AI	다중형태 인공지능 대리인(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인공지능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서강대, KAIST, UN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간 중심의 범용 인공지능을 위한 인간형 기초 모형(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인력양성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GIST, 건국대, 세종대

<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과제선정 >

‘인공지능(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은 창의성과 도전성을 갖춘 우수 인공지능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연구자들이 석박사 이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

인공 지능 원천 및 융합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를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발굴하고, 각 분야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 연계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3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 인공 지능 산업을 이끌 최고급 신진 연구인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노타AI, SK에너지 등과 협력하여, 차세대 제조 혁신을 위해,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에 기반한 내장형 제조 인공 지능(온디바이스 제조 AI)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4D), 다감각 정보(5S), 6대 로봇 기술(6R)을 융합한 초지능형 인공 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 인공 지능이 협업하기 위한 협력지능형 대리인(에이전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세계 선도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2025년(추경) 인공 지능(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 선정 기관 >

주관기관	과제 주제	공동연구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 제조 혁신을 위한 강건한 시각-언어-행동(VLA) 통합지능 내장형(온디바이스) 제조 인공 지능 개발	노타AI, SK에너지, LG AI연구원
서울대학교	시공간 데이터(4D), 다감각 정보(5S), 6대 로봇 기술(6R)을 통한 초지능형 인공 지능 대리인 (AI 에이전트)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
성균관대학교	인간x인공 지능간 동반자적 협업을 위한 협력 지능형 대리인(에이전트) 연구개발 및 세계적 선도를 위한 최정상급(Top-Tier) 연구자 양성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생성 인공 지능(AI)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인공 지능(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형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인공 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민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김주호 (044-202-631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참고1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생성AI 기업과 국내 대학(원)의 공동·파견연구를 통해 초격차 생성AI 기술 확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핵심 인재 양성
- (지원대상) **주관** 생성AI 기업·기관과 **공동** 국내 대학(원)* 컨소시엄
 - * 컨소시엄당 2개 대학(원) 이상 참여 필수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총 72.5억원 / 2+2년(최대 4년)
- (지원방식) 비학위 과정,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
 - (n차년도) 생성AI 기업·기관의 최신 기술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대학(원)이 공동연구 수행하며 석박사급 인재 양성
 - (n+1차년도) 연구성과 우수자를 기업·기관 현장에 파견연구 지원, 실전형 심화연구를 통해 생성AI 분야 초격차 인재로 양성

< 참고 : 각 과제당 지원 내용 예시 >

n차년 공동연구 수행 -(대상) 석박사 재학생 24명 이상 -(방법) 생성AI 기업의 요구 기술을 반영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성과 평가 및 우수자 선정 -(대상) n차년도 참여연구자 24명 → 3명 선정 -(방법)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성과 지표에 따른 평가, 정성평가 등	n+1차년 파견연구 지원 -(대상) n차년도 성과우수자 3명 -(방법) 기업에 파견연구를 통해 생성AI 기술 심층연구 수행
--	--	---

□ 주요 내용

- (산학 공동연구) 생성AI 기업·기관의 기술수요 기반 연구과제를 산학 공동연구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에 적시투입 가능한 AI 핵심인재로 양성
 - ※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개 이상 발굴하고 석·박사 재학생 24명 이상 참여
- (현장파견) 우수 연구자의 기업 파견연구 기회를 통해 연구를 독려하고, 심화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보유한 실전형 고급인재 양성
 - ※ 우수연구자(학생) 3명 이상 기업·기관 파견 필수

□ 사업 개요

- (목적)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 인재 양성
- (기간/규모) '25~'30년(4+2년) / '25년 7개 신규과제로 과제당* 연간 20억원 지원
 - * '25년 1년차 신규과제 10억원(4개, 7월시작), 15억원(3개, 4월시작) 지원
- (지원대상) 대학(원)의 2개 이상의 연구실 및 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 * 대학(원) 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수요기업은 연구 주제별 1개 기업으로 한정

□ 주요 내용

☞ ①국내 최고의 신진연구자가 ②혁신성 있는 연구주제(AI 분야 전반)를 통해 자유롭게 ③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 ① (신진연구자 주도) 신진연구자*가 연구프로젝트 리더로서 프로젝트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프로젝트별 1인 이상의 신진연구자 참여 필수
 - *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인 시기인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
 - 수행 과제 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신진연구자 중심의 과제 구성 유도
- ② (프로젝트 기획·구성) AI 원천·융합 등 쏠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제시하되, 2개 이상의 대학 연구실 협력 필수
 - 프로젝트 당 협력기업을 1개로 제한하여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협력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서류 작업을 최소화
- ③ (연구 집중 지원) 1단계(4년) 지원 이후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후속지원 여부 지원 규모 결정 및 3책 5공 제외를 통한 자유로운 참여 유도
 - 신진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평가에 포함하여 대학(원) 내 협의를 통한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유도